

勞 動 經 濟 論 集  
第22卷(2), 1999.12, pp. 35~60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經濟危機 期間의 雇傭構造 變化

崔 慶 洙\*

### < 目 次 >

- |                          |                         |
|--------------------------|-------------------------|
| I. 서론                    | IV. 産業 및 職業 職群別 雇傭構造 變化 |
| II. 1998年 勞動市場 變化의 展開 樣相 | V. 要約 및 結論              |
| III. 從事上地位別 雇傭構造 變化      |                         |

## I. 序 論

1998년 경제위기는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있지만, 새로운 고용전략(job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1998년의 대량실업의 원인이 노동수요의 감소에 있다면,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도 실업자보다는 고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sup>

\* 慶一大學校 人文社會大學 經濟學科 교수

1) 실업연구는 충격의 성격(nature of shocks)에 대한 연구와 실업 현상의 지속 메커니즘(persistence mechanism)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Lilien and Hall, 1986) 실업연구의 관점에서는 본 연구는 전

1998년 노동시장의 외부환경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총수요가 내·외수 모두 극심하게 위축되었으며, 고금리에 의하여 휴폐업이 속출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되었다. 두 번째로, 1998년에는 정리해고가 일반화되었다. 그 법적, 경제적 여건 및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변화하여 정리해고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경제위기가 발발한지 만 2년이 경과한 1999년 말의 시점에서 이러한 외부여건의 변화가 유발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여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가 악화되었다. 둘째, 직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사무직, 생산직의 감소 등 직업별 고용구조도 변화하였지만, 새로운 직업이 각광받고 근로자의 직장 대이동이 일어나며, 임금지급방식도 바뀌는 등 직업 자체가 변화하였다. 셋째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임금근로자 고용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노동수요이동(skill demand shift)에서 찾고자 한다. 노동수요구조의 이동이란 매우 원론적인 설명이지만, 고용구조 변화의 양상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중하위 직군에서는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직업 및 종사상 지위별 구조 상 보다 하위의 근로자로 대체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이 발견된다. 특히, 98년에는 대량의 실적이 있었으므로, 고용조정과 재충원의 과정을 통하여 고용구조 변화가 현격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용직 비율은 감소하고 직업구조도 변화하였으며, 임금격차는 확대된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98년에는 경기변동적 변화는 매우 신속히 진행되어 수개월 내에 완료된 반면, 고용구조의 변화는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었으며, 그 변화 방향은 지난 92년의 불황 이후 시작된 고용구조의 변화와 연속적이다.<sup>2)</sup> 즉, 고용구조 변화의 압력은 위기 이전부터 축적되고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엄청나게 진행된 것이다. 그 현상은 1980년대 선진국들의 노동시장에서 일어난 변화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선진국들에서는 소위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춘 상위 근로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중하위 근로자의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세부 직군내에서 노동수요의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임금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노동수요구조의 세부적 변화를 직접적으

---

자의 범주에 속한다.

- 2) 1992년경부터 인력수요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은 임금격차추이의 변화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임금분포의 Gini 계수값은 92년까지는 감소추세였으나, 이후 안정적 이었으며, (Yoo and Fields, 1997) 1980년대 이후 계속된 하락한 임금격차의 하락 추세 역시 1990년대 들어 대졸 학력자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세가 멈추고 있었다. (Kim and Topel, 1995; Lee and Kim, 1997)
- 3) Juhn, Murphy, Topel(1991), Juhn, Murphy, Pierce(1993), Katz and Murphy(1992), Bound and Johnson(1994) 등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산업/직업 직군별 고용구조의 변화와 세부직군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변화는 같은 방향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현상은 1998년을 계기로 한 고용구조 변화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경제적 및 제도적 여건에 의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변화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였으나, 그 변화의 방향은 과거와 연속적이고, 또한 범세계적인 현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용구조 변화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혹은 더욱 진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98년 전후의 고용변화의 전개 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제3장에서는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변화를 개관한다. 제4장에서는 세부적인 산업/직업 직군별 고용구조 변화를 고찰하여 경제위기 기간과 그 이후의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향후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 II. 1998年 勞動市場 變化의 展開 樣相

1998년 경제위기의 월별 전개 상황은 [그림 1]과 같다.<sup>5)</sup> 이자율은 97년11월의 14.1%에서 12월에는 24.3%로 급등하였으며,<sup>6)</sup> 부도업체수는 98년12월~99년2월 동안 위기 이전의 3배에 달하였다. [그림 1]의 산업생산지수는 (계절조정계열-100)의 계열인데, 산업생산은 97년12월부터 급락하였으며, 98년9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98년3월에 이미 97년 평균의 2배 이상인 6.5%에 도달하였으며 상승세를 지속하여 98년 12월에는 7.9%까지 상승하였다.

노동시장에서도 1998년 동안 엄청난 고용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감소 범위와 시간적 진행양상은 종사상 지위별로 큰 차이가 있다.([그림 2]) 97:IV~98:IV 동안 비임금근로자는 112천명(-1.5%), 임금근로자는 1,108천명(-8.3%)감소하였으며, 상용직 733천명(-10.6%), 임시직 405천명(-9.2%)이 감소하고, 일용직이 29천명 증가(1.5%)하여 그 감소폭은 상용직이 가장 크다.<sup>7)</sup> 고용감소의 시간적 양상에서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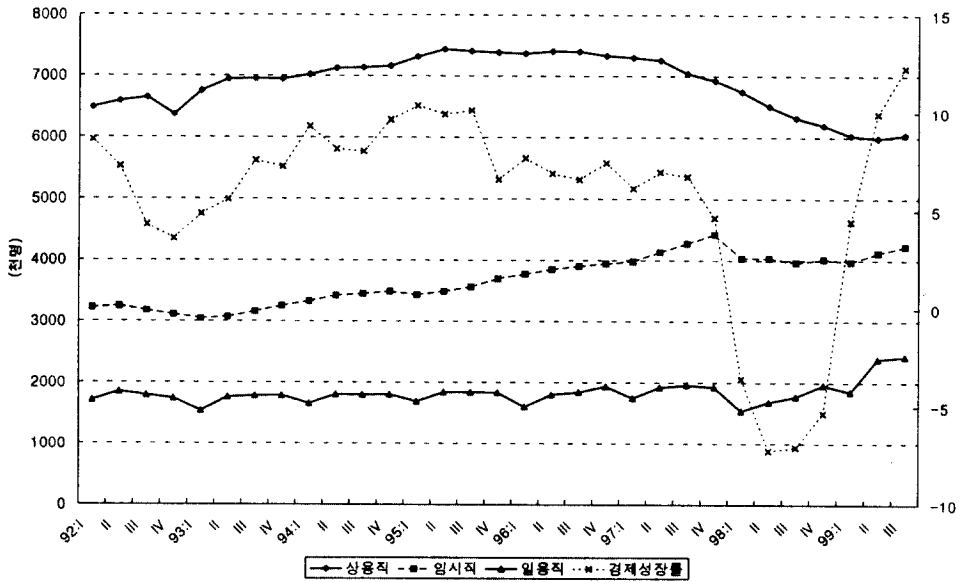
4) 1998년 동안 고용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상용직 감소의 추세가 일단 정지되고 임시직과 상용직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1990년에야 1979년의 비율을 회복하였음을 감안할 때, (Abraham and Houseman, 1994) 고용구조의 변화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5) 이하 본문에서 분기는 콜론과 로마자로 표기하며, 월은 마침표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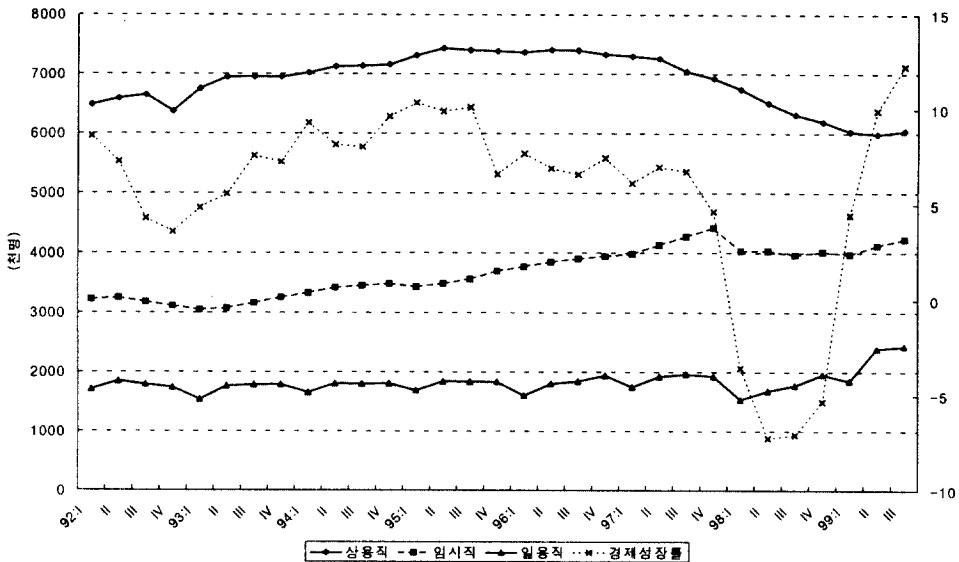
6) 3년만기 회사채 장외수익률 기준임. (한국은행 자료)

7) 상용직 고용은 97년4분기~98년2분기까지 42만명, 99년2분기까지 94만명 감소하였다.

[그림 1] 1998년 경제위기의 전개 과정: 1999.1~99.9



[그림 2] 임금근로자의 고용추이 : 1992:I~99:III



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상용직 감소는 위기 이전인 95년부터 시작되어 99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량부도 시기에 집중되지도 않았다. 반면, 임시직은 98년1분기, 특히 97.12~98.1 동안 9%에 달하는 40만이 감소한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용직도 경제위기 초기에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sup>8)</sup> 이러한 시간적 양상의 차이는 고용감소가 경제위기에 의하여 촉발되었으나, 종사상 지위별로 그 원인은 서로 다르며, 별도의 경제적 현상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고용감소의 양상은 지난 불황기와도 대조적이다.([그림 2]) 1992~93년간에는 상용직 고용은 신속히 회복되어 경기저점(93:1) 1사분기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임시일용직의 회복은 지체되었으며, 시간적으로도 임시일용직 감소가 상용직의 감소를 선행하였다. 그러나, 금번 불황에는 이미 불황이전에 상용직 고용감소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간적 양상의 차이는 1998년 고용감소의 원인이 과거 지난 불황기와도 다를 것을 제시한다.

1998년은 대불황이었므로 고용감소는 단순한 생산 감소의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고용감소의 대부분은 생산 하락 폭이 큰 건설업(-21.3%, 42.7만명)과 제조업(-13.2%, 59.0만명)에서 일어났다.<sup>9)</sup>(<표 1>) 그러나, 생산 감소 외에 고용구조 변화에 의한 고용감소도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 그 추정 근거로서 1998년에는 대폭적인 임금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sup>10)</sup> 불황기의 일반적 양상과 달리 전가수업, 도소매음숙박업, 금보부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고용계수는 하락하였다.<sup>11)</sup>(<표 1.C>)

1998년의 고용감소에 대한 생산감소와 고용계수하락의 영향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각 세부 산업별로 두 요인에 의한 고용감소를 비교한 결과는 <표 1.D>와 같다. 고용, 생산, 고용계수를 각각  $L_t, Y_t, l_t$ 로 나타내면, 고용은  $L_t = l_t Y_t$ 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생산에 의한 고용변화는  $l_{t-1} \Delta Y_t$ 이며, 나머지는 고용계수 하락에 의한 부분이라고 간단히 추정할 수 있다. 고용계수의 하락은 95년 이후 생산증가에 의한 고용증가의 60~70%를 상쇄하는 추세이며, 98년에는 10%에 달하는 실질임금의 대폭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 하락, 즉, 노동 절감의 추세는 지속되었다. 다만, 98년에는 경제성장이 역성장이므로 그 부호가 반대이며, 그 비중은 단순 계산으로 전체고용감소의 약 37%를 차지한다. 생산 감소폭이 특히 큰 건설업이나, 공공근로사업 고용의 비중이 큰 공공서비스업 등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하여 각 세부산업별로 고용변화를 고찰하더라도 유사한 추세가 관찰된다.

8) 일용직의 고용증가는 정부의 직접고용창출정책에 의한 바도 있지만, 그 폭은 이 범위를 상회한다.

9) 1998년 건설업과 제조업 국내총생산의 실질 성장율은 각각 -9.0%, -7.2%이다.

10) 1998년의 실질임금증가율은 전산업 평균 -10.0%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0.5%, 15.0%이다. 고용계수는 불변가액 10억원(1995년 기준) 당 임금근로자의 수로 정의된다.

11) 서비스업 중 전가수업은 전기·가스·수도업, 금보부업은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표 1〉 산업별 임금근로자수 및 증감율, 취업계수 추이 : 1995~98

연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개인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A. 임금근로자수 (천명)										
95	12731	180	4059	1555	68	2387	769	1364	1704	644
96	13041	158	3955	1602	73	2562	779	1499	1773	638
97	13228	158	3737	1617	76	2684	795	1626	1886	648
98	12191	161	3235	1233	61	2472	841	1578	1871	740
B. 증감율 (%)										
95	3.5	-0.1	0.8	6.0	-3.0	6.0	3.9	9.0	1.7	1.7
96	2.4	-11.9	-2.6	3.0	7.2	7.3	1.4	9.9	4.1	-1.0
97	1.4	-0.2	-5.5	0.9	4.2	4.8	2.0	8.5	6.3	1.5
98	-7.8	2.0	-13.4	-23.8	-20.5	-7.9	5.7	-3.0	-0.8	14.2
C. 고용계수 × 100										
95	3.42	0.77	3.61	19.80	0.16	5.06	3.10	2.00	9.83	2.30
96	3.29	0.66	3.29	18.21	0.16	5.07	2.84	2.05	9.72	2.22
97	3.16	0.63	2.92	16.49	0.17	5.11	2.55	2.10	9.79	2.22
98	3.06	0.68	2.73	12.63	0.14	5.10	2.66	2.06	10.25	2.55
D. 고용계수변화 및 생산변화로 인한 고용 증감의 비율 ( $= (\Delta L_t - l_{t-1} \Delta Y_t) / (l_{t-1} \Delta Y_t)$ )										
95	-0.61	-1.00	-0.93	-0.19	-1.33	-0.29	-0.66	-0.14	-0.83	1.20
96	-0.63	-4.50	-1.38	-0.75	0.00	0.04	-0.87	0.38	-0.22	-1.35
97	-0.74	-1.14	-1.86	-0.92	2.00	0.20	-0.86	0.45	0.14	0.00
98	0.58	-1.30	0.81	47.13	1.29	0.03	2.83	2.00	-0.85	-31.67

주 : 고용계수는 1995년 불변가격 기준 10억원 생산당 임금근로자임. 공공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KSIC 75)의 고용이며, 그 생산은 '경제활동별 생산'의 '정부서비스' 항목임.  
 자료 : 통계청, KOSIS 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III. 從事上地位別 雇傭構造 變化

#### 1. 景氣變動과 臨時日傭職의 雇傭 變化

제2장에서는 1998년의 고용감소에는 생산감소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변화도 중요

한 요인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의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고용감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우선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고용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일용직 고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 이유는 임시일용직은 고용조정이 가장 용이한 계층이므로, 1998년의 극심한 불황은 이 계층에 가장 즉각적이고 광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만약, 미숙련 인력의 생산에 대한 단기수요탄력성이 숙련 인력보다 크다면, 미숙련인력의 비중은 불황기에는 하락할 것이며, 경기회복기에 증가할 것이다.(Rosen, 1968)<sup>12)</sup> 또한, 만약 해고관련 법제 혹은 기대형성의 시차에 의하여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조정 시차가 존재한다면,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초기에는 하락하였다가 상용직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각 산업별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는 <표 2>와 같다.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경제위기의 초기에는 건설업, 제조업, 개인·사회서비스업에서 급락하였으나, 1998년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98:IV에는 1년전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경제위기 직후는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낮은 제1분기였으므로, 98:I의 낮은 임시일용직 비중은 일부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이다.<sup>13)</sup> 따라서, 93:I~99:III의 임시일용직 비중을 선형추세와 분기 더미에 대하여 단순회귀하여 보았다. 그 결과도 역시 임시일용직 비중은 제조업, 건설업, 금보부업, 공공서비스업에서 98:I에는 추세보다 낮았으며, 모든 산업에 있어서 98:IV에는 추세적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98:I에 임시일용직의 전체적 비중이 48%에서 45%로 하락한 것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하락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일용직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시직이 임시 및 상용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형회귀분석한 결과는 임시직 비중은 제조업과 금보부업에서만 1998년 초에 추세적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998년의 한국 노동시장에서 경기변동적 요인에 의한 고용조정 양상은 관찰되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1사분기 이내의 단기적이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4사분기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92년의 불황기를 살펴보다라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기변동과정에서 Rosen(1968)이 말하는 경기변동적 변화는 6개월 이내에

12) 미숙련노동력의 생산에 대한 단기와 장기 수요탄력성을 각각  $\epsilon_{L_y}^{SR}$ ,  $\epsilon_{L_y}^{LR}$ 으로 표기한다면,  $\epsilon_{L_y}^{SR} \geq \epsilon_{L_y}^{LR}$ 의 관계가 성립한다. 반면, 고정자본과 보완관계에 있는 숙련노동력의 수요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한다. Rosen은 이러한 현상을 철도 노동자들이 기술자들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에 대한 관찰로부터 발견하였다. (Rosen 1968) 이자율이 급상승할 때, 기업의 이윤이 급감하여 미숙련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는 메커니즘도 이와 같이 설명된다.

13) 필자는 이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표 2〉 임시일용직의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 1997:I~99:III

연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개인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1997:I	0.44	0.83	0.34	0.69	0.08	0.66	0.19	0.33	0.42	0.10
1997:II	0.45	0.86	0.35	0.73	0.07	0.66	0.19	0.34	0.44	0.11
1997:III	0.47	0.86	0.35	0.74	0.08	0.69	0.21	0.35	0.45	0.11
1997:IV	0.48	0.86	0.37	0.75	0.09	0.70	0.22	0.38	0.45	0.10
1998:I	0.45	0.90	0.34	0.69	0.16	0.71	0.22	0.38	0.42	0.11
1998:II	0.47	0.91	0.34	0.71	0.11	0.73	0.20	0.39	0.44	0.15
1998:III	0.48	0.90	0.36	0.71	0.09	0.74	0.21	0.40	0.44	0.21
1998:IV	0.49	0.91	0.38	0.72	0.10	0.74	0.23	0.42	0.45	0.31
1999:I	0.49	0.88	0.39	0.69	0.12	0.75	0.23	0.42	0.45	0.33
1999:II	0.52	0.91	0.42	0.74	0.20	0.76	0.25	0.43	0.47	0.38
1999:III	0.52	0.89	0.43	0.74	0.25	0.76	0.26	0.44	0.46	0.35

거의 완료되는 양상을 보인다.<sup>14)</sup> 다만, 건설업에서는 이 현상이 지속되어 98:IV까지 40만의 임시일용직이 방출되었다.<sup>15)</sup> 1998년에는 상용직의 고용조정도 신속하여 그 과정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임시일용직의 현격한 고용증가가 없었음에도 98:I 이후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98년 동안 빠르게 상승하여 98:IV에는 이미 97:IV의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조정 시차는 1년 이내이며, 99년에도 계속되는 상용직의 고용감소가 고용조정시차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용직 고용감소가 신속하고 광범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 1998년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그 현상과 원인이 본 연구의 핵심적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1998년의 임시일용직 고용에는 불완전취업의 증가도 관찰된다. 특히, 농림어업의 일용직 증가는 명백한 불완전취업으로 추정되며, 이밖에 광공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보부업, 공공서비스업에서도 일용직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 범주에는 정부의 직접고용창출사업에 의한 고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4) 92:IV~93:III간 임시일용직 고용감소는 22만(4.5%)이었으나, 93:II에는 92:IV의 고용규모를 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중은 92:IV의 43%로부터 93:I 40%, 93:II 41%로 하락하나, 93:III에는 42%로 회복되었다.

15) Rosen은 건설업에서 예를 들었으므로, 그의 논리에 충실하자면 건설업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 임시일용직 고용비중은 92~93년간에는 주택건설 감소라는 산업구조 변화로 추세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경기적요인에 의한 변동을 분리할 수 없으며, 98년에는 다른 산업과 달리 98:IV에도 여전히 97:IV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2. 常用職의 雇傭 變化

상용직의 감소는 1998년 고용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상용직은 97:IV~98:IV의 1년간 733천명(10.3%)이 감소하였다. 소위 '정규근로자' 가운데 열명에 한 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러한 고용감소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미증유의 현상이지만 그 양상 또한 과거와 매우 다르다.

<표 3> 상용직의 산업별 고용감소 추이 : 97:IV~98:IV

연도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개인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
고용감소(천명)	-733	-7	-362	-75	-16	-169	34	-133	-7	2
증감율(%)	-10.6	-33.4	-15.5	-18.6	-22.3	-21.0	5.4	-12.8	-0.6	0.4

97:IV~98:IV 동안의 상용직의 고용감소는 광공업이 362천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지만, 서비스업도 288천명이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보부업이 대부분이다.<표 3> 과거에는 92년 이후 상용직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산업별로 간혹 감소하더라도 소폭에 그쳤으나, 96년부터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기 시작하여 97년부터는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용직 감소는 생산감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생산대비 상용직고용의 고용계수는 광공업에서는 95년 이전부터 하락하고 있었으나, 서비스업에서도 9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97, 98년에는 빠른 속도로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금보부업, 개인사회서비스업에서는 임금근로자 고용계수는 96~97년간 상승하지만, 상용직 고용계수는 하락하였으며, 98년에는 이 산업들에서 상용직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상용직 고용감소는 96년부터 서비스업에서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98년의 대폭적인 상용직 고용감소는 생산감소 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에 의하여 그 폭이 확대된 것이다.

상용직 고용감소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상용직의 직업구조에서 전문기술직은 증가, 생산직은 감소하고 있으며, 사무서비스직은 그 비중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도 감소하고 있다.<sup>16)</sup> 임금근로자 전체로서도 전문기술직은 증가하고 생산직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사무서비스직의 고용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상용직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 역시 96년부터는 가속되고 있으나, 98년에는 직업구조 변화가 가속된 반면, 상용직 비율의 변화는 99년에 오히려 가속

16) 이 분류에서 전문기술직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및준전문직이며, 사무서비스직은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은 농어업숙련직, 기능직, 조립조작장치, 단순노무직을 포함한다.

되고 있다.<표 4> 직업구조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표 4> 상용직의 직업구조 변화 추이 : 1995~99:III (단위: %)

	95	96	97	98:I	II	III	IV	99:I	II	III
A. 상용직 직업구조										
전문기술직	30.3	30.7	32.9	34.0	35.5	36.2	36.7	37.6	37.1	36.9
사무서비스	31.9	32.3	31.5	33.4	32.5	31.9	31.0	29.7	29.7	29.7
생산직	37.8	37.0	35.6	32.6	32.0	31.9	32.3	32.7	33.1	33.4
B. 임금근로자 직업구조										
전문기술직	19.8	20.5	21.2	23.0	23.4	23.6	23.5	24.2	23.1	22.9
사무서비스	31.5	32.1	32.6	34.0	33.6	33.2	32.4	32.3	31.5	31.5
생산직	48.7	47.4	46.2	43.0	43.0	43.1	44.1	43.5	45.4	45.6
C. 직업별 상용직의 비율										
전문기술직	88.6	84.2	81.3	80.9	80.7	80.2	79.3	79.2	77.0	76.6
사무서비스	58.6	56.5	50.5	53.8	51.4	50.3	48.8	46.7	45.3	44.8
생산직	45.0	43.8	40.3	41.5	39.7	38.8	37.3	38.2	34.9	34.9
전직업	57.9	56.2	52.3	54.7	53.2	52.4	50.9	50.9	47.9	47.6

## IV. 産業 및 職業 職群別 雇傭構造 變化

### 1. 統計 資料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기본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로 약칭)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이하 『임금구조』) 원자료이다. 『경활』 자료는 취업자의 중분류(2자리수) 산업 및 직업 분류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산업 및 직업 분류코드는 92년과 93년에 각각 대폭 개정되었으며, 신규분류 코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경활』 자료는 1992년에는 신산업분류, 93년에는 신직업분류를 병행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993년 이후부터 일관된 신분류 코드에 의한 시계열 구축이 가능하다.<sup>17)</sup> 이러한 분류 코드 변경이 고용구조 변화 연구에 주는 큰 난점은 구축된 시계열이 짧아 단 한 차례의 경기순환만이 포

17) 그러나, 이후에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특히 93년 1, 2분기의 신직업분류 통계는 그 이후와 추세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시험적으로 병행조사된 산업/직업 분류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함되므로 과거 불황기와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1980년대의 중분류 산업/직업 코드를 포함하는 『경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으므로, 구분류에 의한 과거 불황기에 대한 고용구조 변화의 분석도 시도할 수 없었다.

통계자료의 다른 큰 약점은 『경활』 자료가 임금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조사 과정에서는 임금이 임금수준 단계별로 수집된다고 하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금조사』를 임금에 대한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1996년까지의 자료만을 연구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밖에도 두 자료의 조사대상 및 종사상 지위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임금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구조사인 『경활』과는 조사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상용직」과 「임시직」 등 종사상 지위별 분류에 있어서도 두 조사는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sup>18)</sup>

## 2. 雇傭構造變化의 事例 - 都小賣業과 金融서비스業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9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구조 변화의 전형적인 사례인 도소매업과 금융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본다.<sup>19)20)</sup> 98년을 전후한 도소매업 고용구조의 변화를 각년도 제3분기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전체적인 고용규모는 99:III에 이르러 경제위기 이전인 97:III의 수준을 초과한다. 그러나, 고용 증가는 주로 단순노무직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장치조작조립직에서는 97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사무직은 97년에 이어 98년에도 고용이 계속 감소하였다. 직업중분류 수준에서도 그 변화 양상은 대동소이하다. 관리직 중에서는 주로 종합관리자가 감소하였으며, 기술준전문직 중에서는 기타 준전문직이 감소하였다.<sup>21)</sup> 사무직은 일반사무직 및 고객봉사 사무직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단순노무직은 단순서비스와 운수관련단순노무직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97년 이전과는 대조적이다. 과거에는 각 직업별로 고르게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직과 사무직의 감소와 단순노무직 증가 등의 변화가 현격하지 않았다.

18)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활』의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없었다.

19) 제2절은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검토의견에 따라 추가되었다. 필자는 본 절의 내용이 본 연구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 여기에서 도소매업은 신산업분류 51(도매 및 상품 중개업)과 52(소매 및 소비용품 수산업, 자동차 제외)이며, 금융서비스업은 65(금융업), 66(보험 및 연금업), 67(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이다.

21) 도소매업에 관련된 기타준전문가(34)로서는 금융 및 판매준전문가(341),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상품중개인(342), 관리준전문가(343) 등이 있다.

〈표 5〉 도소매업의 대분류직업별 고용 추이: 1993:III~99:III (단위: 천명)

	94	95	96	97	98	99
1. 관리직	25.1	23.5	25.4	24.5	19.8	21.9
2. 전문직	6.9	10.4	11.8	8.2	6.4	7.5
3. 기술/준전문	110.3	156.5	191.7	224	236.2	241.1
4. 사무직	349.2	329.6	342.5	348.8	299.3	289.7
5. 서비스/판매	526.1	523.9	559.1	555.9	525.9	564.8
7. 기능직	52.2	53.4	51.0	60.0	56.3	62.9
8. 장치조작조립	100.9	98.4	97.8	89.5	71.8	78.8
9. 단순노무직	191.2	211	215.6	227.4	227.9	273.6
전직업	1362.0	1406.6	1494.9	1538.3	1443.7	1540.7

주: 각년도 제3분기 자료임.

종사상 지위별로는 98년에는 주로 상용직이 감소하였으며, 99년에도 상용직은 미세하나마 감소한 반면, 임시직, 일용직은 증가하였다.(〈표 6〉) 보다 자세히 각 직업분류별로 종사상 지위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상위직업에서는 상용직이 임시직으로 대체되고, 하위직업에서는 임시직이 일용직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그 추세 역시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다. 각 직업내에서 상용직은 98년에 대폭 감소하여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은 98~99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도소매업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성 : 1993:III~99:III (단위: 천명)

	94	95	96	97	98	99
상용직	645.3	648.9	673.1	612.3	479.6	473.4
임시직	602.0	643.0	696.3	766.9	792.7	853.8
일용직	114.6	114.7	125.5	159.0	171.4	213.5
상용직	0.47	0.46	0.45	0.40	0.33	0.31
임시직	0.44	0.46	0.47	0.50	0.55	0.55
일용직	0.08	0.08	0.08	0.10	0.12	0.14

금융서비스업의 고용변화 양상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서비스업에서는 98년과 99년에 대폭적으로 고용이 감소하여 99:III에도 여전히 95:III의 고용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감소는 주로 관리직, 사무직, 기술준전문직, 장치조작조립직에 집중

되었으며, 특히, 기타준전문직과 고객봉사사무직은 97년과 비교하여 각각 2만명 이상이 대폭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역시 상용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은 99년에 9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상용직 비율은 특히 일반사무직, 판매선전원, 단순서비스직,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직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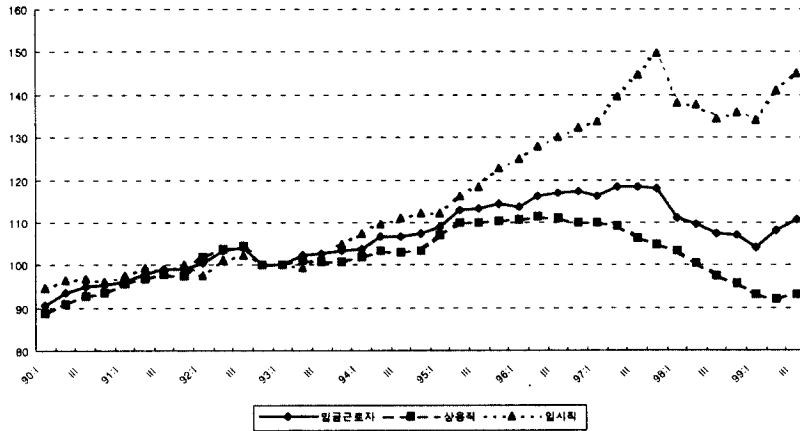
도소매업과 금융서비스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상위의 직업 및 종사상 지위의 근로자가 보다 하위의 근로자로 대폭적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며,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유지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즉, 생산성 향상의 압력이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증가함에 따라 노동비용이 보다 저렴한 근로자로 대체가능한 작업은 이관되는 고용구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경제전체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각 산업/직업별로 직군의 순위가 다르다는 문제, 각 산업/직업별 고용 구성은 계속 변화하므로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산업별 고용 구성의 변화와 산업내 직업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산업별 혹은 직업별로 분리하여 고용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으며, 각 산업/직업의 직군별 고용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産業/職業 職群別 雇傭構造의 變化

제3절에서는 산업/직업 직군별 고용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직군의 효율단위(efficiency unit) 노동투입량을 정의하여 그 추이를 고찰한다. 직군별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은 그 직군의 평균 시간당임금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그 총량과 평균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에 대한 척도가 된다. 단순한 고용량이 아닌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을 고려하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년에는 단순한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용구성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사상 지위에 따른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의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통계자료상의 문제에 있다.

구체적으로 직군별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은 『임금구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신산업/직업분류가 적용된 1993년 이후의 직군별 효율단위노동투입은 『임금구조』의 각 직군의 중간치(median) 시간당임금의 1994~96년 3개년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시간당임금은 주당 15시간 이상(월 60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상급여+초과급여+(연간특별급여/12)}로 정의된 전체임금을 (정상+초과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관찰치가 많지 않아 평균 임금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차산업과 공공서비스업, 농어업숙련직은 제외하였으며, 임금관찰치가 10개 미만인 직군도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667개의 직군에 대한 효율단위노동투입이 정의되며, 누락되는 관찰치는 『경활』을 기준으로 약 10%이다. 구산업분류가 적용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효율단위(efficiency unit) 노동투입 총량 추이  
: 1990:I~99:III



된 90~92년의 고용통계에는 90, 91년의 『임금구조』를 이용하였다.<sup>22)23)</sup>

$X_{ijt}$ 를  $t$ 시기의  $(i, j)$ 직군의 고용,  $\alpha_{ij}$ 를 그 직군의 고용당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이라 한다면, 효율단위 노동투입의 총량은  $I_t = \sum_{i,j} \alpha_{ij} X_{ijt}$ 으로 계산되며, 그 추이를 지수로 나타낸다면 [그림 3]와 같다. 효율단위 노동투입의 시계열은 92년과 93년 사이에 단절되므로, 92:IV와 93:I을 각각 지수 100으로 하여 두 시계열을 연결하였다. 그림은 90년대 전반에는 종사상 지위별로 노동투입 증가가 고르게 이루어졌으나, 95년경부터 상용직의 노동투입량은 감소하고 주로 임시직에 의하여 노동투입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 22) 시간당임금의 산출에서는 중간치(median)를 추출하고 가중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직군에서 임금관찰치가 많지 않아 먼 관찰치(outlier)의 과도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93년 이후의 신분류 고용통계에서는 농림어업 및 광업(산업분류≤14)과 공공서비스업(75), 농림어업 숙련직(6)을 제외하였으며, 90~92년의 구분류에서는 산업분류 20 이하인 농림어업 및 광업이 제외되었다.
- 23) 각 직군의 효율단위노동투입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근로자 특성에 따른 노동투입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중간치 회귀분석(median regression)을 실시하기가 복잡하며, 또한 고용구조와 학력별 인력수요 변화는 엄격히 별개의 경제적 현상임에 있다. (Juhn, Murphy, Pierce, 1993) 중분류 수준에서는 임금관찰치가 많지 않은 직군이 다수이므로, 선형회귀분석 방법으로 근로자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먼 관찰치(outlier)의 영향으로 단순한 중간치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96년 『임금구조』에서 중분류 산업/직업 직군의 직군내 분산(within cell variation)은 전체 분산의 약 54.0%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특성의 임금분포에 대한 설명력이 약 0.3~0.4임을 고려할 때, 직군별 중간치 임금은 임금구조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근로자 특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상정한 이유도 있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효율단위 노동투입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경황』과 『임금구조』의 종사상 지위별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와 같은 변화에 의하여 총노동투입에서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하였다.(<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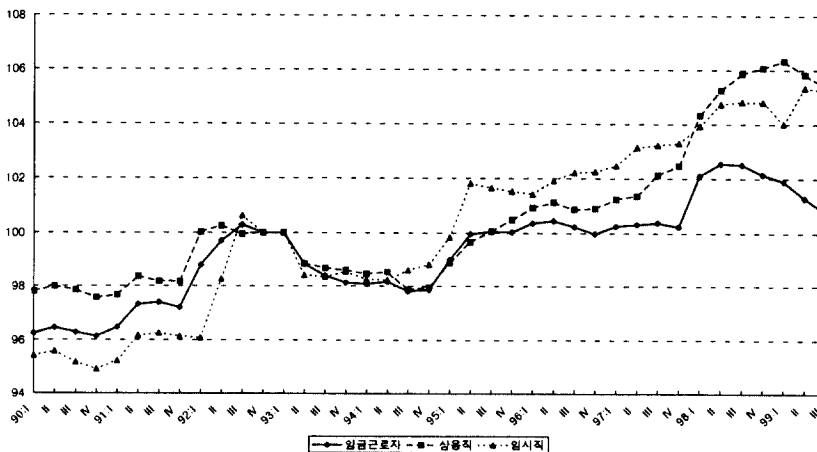
<표 7> 효율단위 노동투입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 1993:III~99:III (단위: %)

	93	94	95	96	97	98	99
상용직	64.8	63.7	64.0	62.6	59.3	59.8	55.4
임시직	22.7	23.8	23.9	25.5	28.0	28.7	29.9
일용직	12.5	12.6	12.1	11.9	12.7	11.5	14.7

주 : 각년도 제3분기 자료임.

효율단위 총노동투입량을 고용으로 나누면 고용 단위당 효율단위 노동투입량이 되며, 직군별 고용 구성에 대한 한 지표가 된다. 즉,  $x_{ijt}$ 를  $t$ 분기의  $(i, j)$ 직군 고용의 전체고용  $X_t$ 에 대한 비중( $x_{ijt} = X_{ijt}/X_t$ )이라고 정의한다면,  $E_t = I_t/X_t = \sum_{i,j} \alpha_{ij} x_{ijt}$ 는  $t$ 분기의 직군별 고용구성을 나타내는 기능구성지수(skill composition index)가 된다. 그 추이는 각 종사상 지위별로 [그림 4]와 같다. 임금근로자의 기능구성은 90년대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이며, 불황기의 급격한 기능구성 상승은 고용조정이 주로 저기능 직군에서 일어남을 반영한다. 95년 이후 일관되게 임금근로자의 기능구성 지수가 임시직과 상용직 모두를 하회하는 것은 기능구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의 비중이 하락한 결과이다. 임금근로자의 기능구성지수는 98년에 크게 상승한 이후, 99:III에는 거의 97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므로, 경제위기 이후 산업/직업 직군별 고용구조는 산술적 평균으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로 그 고용규모는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기능구성(skill composition) 추이 : 1990:I~99:III



95년의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므로, 만약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까지 고려한다면 고용구조는 95년의 수준보다 악화된 것이다.

[그림 4]에서와 같이 98년에는 평균적인 기능구성이 크게 상승하였다가 고용회복과 더불어 99년에는 97년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 변화는 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을 각각  $R, F, D$ 로 나타낸다면, 기능구성지수  $E_t$ 는

$$\begin{aligned}
 E_t &= \sum_{ij} \alpha_{ij} L_{ijt} / L_t = \sum_{ij} \alpha_{ij} (R_{ijt} + F_{ijt} + D_{ijt}) / L_t \\
 &= \sum_{ij} \alpha_{ij} (R_{ijt} / R_t) (R_t / L_t) + \sum_{ij} \alpha_{ij} (F_{ijt} / F_t) (F_t / L_t) + \sum_{ij} \alpha_{ij} (D_{ijt} / D_t) (D_t / L_t) \\
 &= C_t^R s_t^R + C_t^F s_t^F + C_t^D s_t^D \text{ 이므로} \\
 \Delta E_t &= \{\Delta C_t^R s_t^R + \Delta C_t^F s_t^F + \Delta C_t^D s_t^D\} + \{C_{t-1}^R \Delta s_t^R + C_{t-1}^F \Delta s_t^F + C_{t-1}^D \Delta s_t^D\}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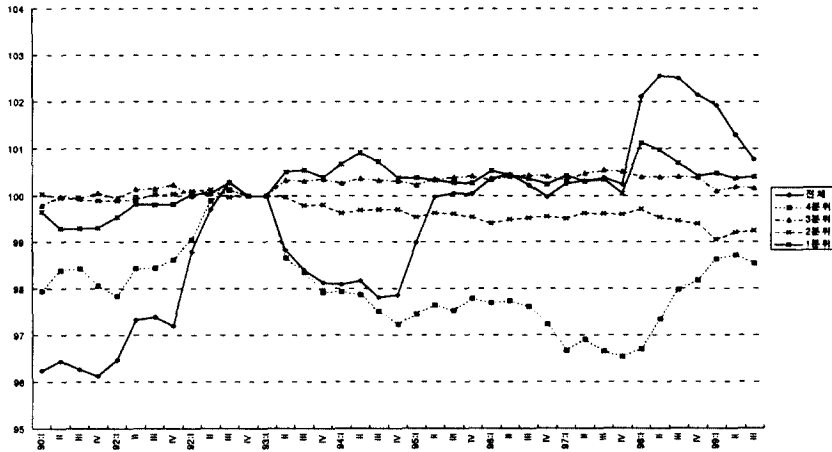
가 되며, 따라서 기준시점으로부터의 기능구성지수의 변화( $\Delta E_t$ )는 종사상 지위별 기능구성의 변화( $\Delta C_t^R, \dots$ )와 고용비중( $s_t^R, \dots$ )의 변화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된다. <표 8>은 각각의 기준시점(94:IV 및 97:IV)으로부터의 기능구성의 % 증가를 요인별로 나눈 결과이다. 두 기간에서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여 종사상 지위별 고용비중 변화에 의하여 전체적인 기능구성이 상승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임시일용직이 증가하여 기능구성은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95년에는 종사상 지위별 기능구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임시일용직의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능구성은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98년에는 종사상 지위별 기능구성도 98:IV 이후 하락하여, 고용비중 변화도 전체적인 기능구성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고용회복과 더불어 기능구성이 원래 수준에 복귀하였다는 데에 있다. 즉, 98:IV 이후 99년의 고용증가는 제2절의 사례와 같이 하위의 직군 혹은 종사상 지위에서 주로 일어났으므로, 전체적인 기능구성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표 8> 임금근로자 기능구성 상승률(%)의 요인별 분해: 1994:IV~96:III, 1997:IV~99:III

	95:I	II	III	IV	96:I	II	III	98:I	II	III	IV	99:I	II	III
기능구성상승	1.2	2.1	2.2	2.2	2.5	2.6	2.4	1.9	2.3	2.3	1.9	1.7	1.0	0.5
기능구성변화	0.8	1.9	2.1	2.3	2.6	2.9	2.8	1.2	1.9	2.1	2.0	1.8	1.9	1.6
고용비중변화	0.3	0.3	0.1	-0.1	0.0	-0.2	-0.4	0.7	0.4	0.2	-0.1	-0.2	-0.8	-1.0



(그림 5) 임금근로자의 분위별 기능구성 (skill composition) 추이 : 1990:I~99:III



다음으로, 이러한 기능구성 변화의 추이는 각 임금분위별로는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직군을 그 평균임금(효율단위 노동투입)을 기준으로 4분위로 분류하였으며, 그 고용비중은 94~96년간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각 분위별 기능구성 변화의 추이는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는 최고 분위인 제4분위의 변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제4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평균임금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각 분위내에서의 기능구성 변화는 크지 않으며, 전체적인 기능구성 지수의 결정에는 각 분위별 고용비중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sup>24)</sup> 각 분위별 고용의 추이([그림 6])에서는 1998년의 경제위기기간 동안 고용감소는 주로 1~3분위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제3분위에서는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99:III에도 고용은 97년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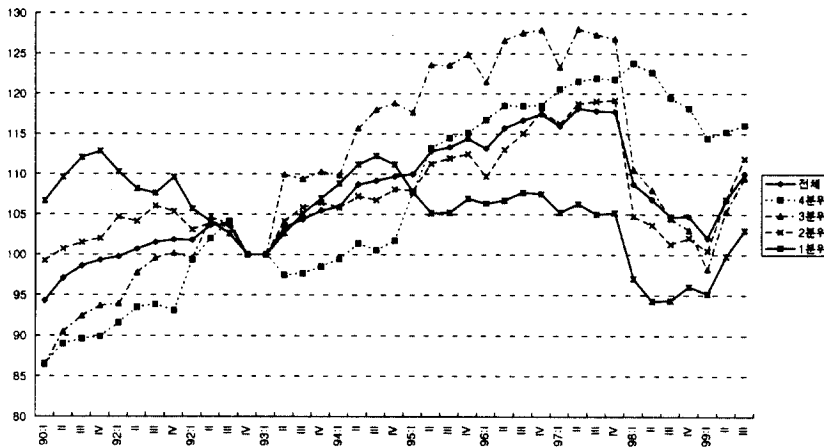
<표 9> 한국의 임금 분위별 고용구조(1996:III~99:III) 및 미국과의 비교 (단위: %)

	한국 (원)	96	97	98	99	미국 (\$)	1983	1993
제4분위	6,281~21,130	25.5	26.0	28.7	26.5	551~1,131	24.3	25.2
제3분위	5,232~6,281	24.2	23.9	22.1	22.0	378~540	22.9	23.2
제2분위	4,134~5,230	25.4	26.1	25.0	26.2	259~374	28.3	26.6
제1분위	2,270~4,133	24.9	24.0	24.3	25.2	111~249	24.5	25.1

주 : 한국의 임금은 직군별 중간치 시간당임금의 94~96년 평균이며, 고용구성은 제3분기 통계임. 미국은 93년의 직업별 주당 임금의 중간치(median)이며, 연간통계임. Rosenthal(1995), Table 4로부터 인용.

24) 이러한 결과는 그림에서도 전체적인 기능구성지수와 제4분위 지수의 변화가 그 방향과 시점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데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6] 임금근로자의 분위별 고용 추이 : 1990:I~99:III



임금분위별 고용구조 변화는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제4분위와 제1분위의 고용이 증가하고, 제3분위의 고용이 감소하였다.(〈표 9〉)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미국의 임금수준별 직업구조의 변화와 공통점을 지닌다.<sup>25)</sup> 1983~93년 동안 미국에서도 최고와 최저 임금수준의 직업에서 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제2분위에서 고용이 감소하여 중간계층의 고용비중이 감소하였다. 미국에서는 제2분위가 감소하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제3분위가 감소한 것은 미국의 직업구조는 한국에 비하여 고도화되어 있으므로, 각 직업의 분위별 분포가 양국에서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sup>26)</sup>

#### 4. 從事上 地位別 雇傭構造 變化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성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가장 현격한 변화를 보인 고용구조의 한 측면이다. 특히 상용직 비중의 하락이 가장 특징적이다. 상용직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가장 큰 고용감소를 보였으며, 99년의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는 미미하여 그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표 10〉)

25) 미국의 통계는 Rosenthal(1995)로부터 재인용한 것이다. Rosenthal(1995)은 미국의 278개 직업을 1993년의 CPS 자료의 중간치 주당 임금을 기준으로 4분위로 분류하여 분위별 고용변화를 고찰하였다.

26)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임금근로자 중 전문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99:III 현재 약 22.9%이다. 그런, 미국의 통계에서는 전문기술직(사무직 포함)이 1993년 CPS 자료를 기준으로 46.8%로 추정된다.

〈표 10〉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 : 1993:III~99:III (단위: %)

	93	94	95	96	97	98	99
상용직	58.5	57.7	57.4	55.8	52.3	51.9	47.5
임시직	26.5	27.8	28.7	30.5	33.2	34.2	35.0
일용직	15.0	14.6	13.9	13.7	14.5	13.8	17.5

주 : 각년도 제3분기 자료임. 전체고용이 아닌 667개 직군에 대한 통계임.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변화를 임금분위별로 살펴본다면 직군별 변화와 유사한 양상이 발견된다. 직군별 고용구조에서 제4분위를 제외한 전분위에서 98년에 고용이 크게 감소한 이후, 하위직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된 것과 같이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에서도 최고위 이하의 임금분위에서 하위의 종사상 지위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됨으로써 전체적인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가 악화되는 변화가 일어났다.〈표 11〉 97:III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상용직은 3분위 이하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며, 임시직도 그 하위 분위에서 감소하였다. 즉, 최고위 이하의 분위에서는 순차적으로 상용직은 임시직으로, 임시직은 일용직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것이다.

〈표 11〉 임금분위별 종사상지위별 고용변화 (1997:III~99:III) (단위: %)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98	99	98	99	98	99	98	99
제4분위	-2.0	-4.8	-2.0	-9.9	-3.8	15.5	14.2	80.3
제3분위	-18.0	-14.0	-18.2	-20.1	-7.3	-3.4	-30.3	-13.5
제2분위	-14.9	-6.0	-17.0	-14.6	-11.4	-6.6	-17.5	9.7
제1분위	-10.2	-1.9	-21.1	-22.1	-7.9	-1.8	12.6	58.2
전체	-11.1	-6.6	-11.7	-15.2	-8.4	-1.6	-15.5	12.5

주 : 97년 3분기로부터의 각년도 제3분기의 증감율임.

이러한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의 변화의 대부분은 각 세부 직군내에서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성이 변화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상용직의 고용비율 감소를 직군내 변화와 직군간 분포의 변화에 의한 효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상용직의 고용비율( $p_t$ )은 각 직군별 고용비율의 가중평균이므로 ( $p_t = \sum_{ij} s_{ij} p_{ij}$ ), 두 시점  $t$ 와  $s$  사이의 고용비율의 변화( $\Delta p_t = p_t - p_s$ )는 두 시점의 평균 고용비율( $\bar{p}_{ij}$ )과 평균 고용비중( $\bar{s}_{ij}$ )을 이용하여  $\Delta p_t = \sum_{ij} \bar{p}_{ij} \Delta s_{ij} + \sum_{ij} \bar{s}_{ij} \Delta p_{ij}$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직군별 고용구성 변화에 의한 상용직 비율의 변화, 후자는 직군내 고용비율 변화로 인한 상용직 고용비율의 변화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해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의 상용직 고용비율 변화가 세부 직군내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표 12> 직군별 고용구성의 변화는 97:III~99:III 동안 오히려 상용직의 비율이 높은 직군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여 상용직의 고용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직군내에서 고용비율이 하락하여 전체적인 고용비율이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 이후 지속되었다.

<표 12> 상용직 고용비율 감소의 요인별 분해 : 1995:III~99:III (단위:% 포인트)

	97:III~99:III			97:III~98:III			98:III~99:III			95:III~99:III		
	증감율	직군간	직군내	증감율	직군간	직군내	증감율	직군간	직군내	증감율	직군간	직군내
제4분위	-4.5	0.5	-5.0	0.0	0.9	-0.8	-4.5	-0.4	-4.1	-5.2	-0.8	-4.4
제3분위	-3.5	1.2	-4.7	-0.2	2.2	-2.4	-3.4	-1.1	-2.3	-4.4	-0.7	-3.6
제2분위	-3.5	1.5	-5.0	-0.9	2.6	-3.6	-2.5	-1.1	-1.4	-5.3	-0.9	-4.4
제1분위	-7.4	-0.7	-6.8	-4.4	0.5	-4.8	-3.1	-1.2	-1.9	-5.6	-2.3	-3.3
전체	-4.8	0.6	-5.4	-0.3	2.5	-2.9	-4.5	-2.0	-2.5	-6.4	-0.3	-6.1

주 : 각년도 제3분기의 증감율임. 전체 고용이 아닌 667개 직군에 대한 통계임.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용직 구성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는다.<sup>27)</sup> 그러나, 그 현상은 대규모의 고용감소와 고용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진전되었으므로, 수년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상용직 고용비율 하락의 압력이 대량해고와 충원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었음을 제시한다. 또한, 상용직 비율의 하락은 특히 하위 직군을 중심으로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하게 진행되었으며, 각 직군내에서 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sup>28)29)</sup> 상용직 비율 하락과 직업구조의 변화는 동시에 일어났으나, 뚜렷한 연관관계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그 하락 추세는 특정의 산업/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용직 하락의 원인은 특정 부문보다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관련 법제 및 관행, 정보화기술 발전에 의한 미숙련 노동수요 감소와 같은 거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 혹은 기술 변화는 서서히 진행

27) 상용직 감소, 임시직 증가의 원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형만(1997), 최경수(1997) 등을 참조.

28)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보다 더 자세한 직업/산업 분류를 포함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분류 수준의 분류에서도 상용직 비율은 극히 광범하게 하락하였으므로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29) 이러한 추정결과는 1980년대의 미국의 임금격차의 확대가 대부분(2/3) 산업/직업의 직군내에서 이루어졌다는 Juhn, Murphy, Pierce(1993), Katz and Murphy(1992)의 결론과 유사한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 직업직군은 대분류 혹은 그 이상의 넓은 직군을 사용하였다.

되기 때문에 급격한 상용직 비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용직 비율의 급격한 하락은 그 변화의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량 해고라는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됨에 따라 급진전된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 5. 職業構造의 變化

직업구조의 변화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구조 변화의 다른 한 중요한 측면이다. 직업계열별로는 전문기술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사무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비중은 감소하였다.(<표 4>) 이러한 직업계열별 고용구조 변화는 각 산업별 및 산업내 직업구조 변화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경기변동적 영향도 있으므로 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직업변화의 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각 대분류 산업내에서 직업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며, 직업별로는 전문직, 준전문직에서는 그 기능구성이 하락하며,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에서는 기능구성이 상승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즉, 전문, 준전문직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위 직업들이 팽창하고 있으며, 사무직 등 중위직에서는 상대적인 하위 직업들이 보다 더 하위인 다른 직업군으로 대체되면서 그 기능구성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변화가 매우 세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본 논문에 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sup>31)</sup> 여기에서는 직업계열별 고용구성의 변화가 산업별 혹은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각 직업계열의 고용비중 변화는 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즉, 각 직업계열에 속하는 중분류 직업  $j$  의 집합을  $J$ ,  $i$ 기의 중분류 산업  $i$ 의 고용비중을  $s_{it}$ , 산업  $i$  내에서 직업  $j$ 의 비중을  $r_{jt}$ 라고 할 때,  $i$ 기의 각 직업계열의 비중은  $S_i = \sum_j \sum_{j \in J} s_{it} r_{jt}$ 가 된다. 신분류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94:I~99:III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 기간의 평

30) Abraham and Houseman(1994)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1980년대 후반에 실시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보호법제의 개정 이후 고용조정 시차가 현격히 변화하였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서 기업들이 이미 기존의 법제에 적응하여 고용조정이 용이한 고정계약기간 근로자를 늘리고 있었으므로, 법제의 변경 자체로 인한 효과는 작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법제의 변경과 상관없이 기존의 제도에 적응하는 노력으로 상용직을 감소하고 있었으며,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상용직 감소가 크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서 Blanchflower and Freeman(1993)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처 정부의 정책효과를 넓게(generously)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환경 자체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비교한다면 사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들 수 있다.

31) 각 산업 차원에서의 자세한 직업구조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제2절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군 산업별 및 산업내 직업비중을 각각  $\bar{s}_i$ ,  $\bar{r}_j^i$ 로 나타낸다면, 요인별 분해는 다음과 같다.  $S_t^j = \sum_i [ \bar{s}_i \bar{r}_j^i + (s_{it} - \bar{s}_i) \bar{r}_j^i + \bar{s}_i (r_{jt}^i - \bar{r}_j^i) + (s_{it} - \bar{s}_i)(r_{jt}^i - \bar{r}_j^i) ]$

여기에서 최초의 항은 상수이며, 제2항은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에 의한 직업계열별 고용구조의 변화, 제3항은 산업내 직업구조 변화에 의한 변화로 해석되며, 마지막 항은 잔차항이지만 그 크기는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13>와 같으며, 각 직업계열별로 그 구성 변화의 요인은 서로 다르지만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산업내 직업구조의 변화가 현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기술직은 산업 및 직업구조 모두 그 고용비중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며, 직업구조변화의 효과가 중요하였다. 사무서비스직에서는 양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즉, 산업내 직업구조는 사무서비스직 고용비중 하락의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증가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그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98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산업내 직업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sup>32)</sup> 생산직 고용비중 감소는 주로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에 의한 것이다. 산업내 직업구성의 변화가 97~99년간 생산직 비중 증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산직에 포함된 단순노무직이 99년에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94년 이후 추세적 변화는 산업내 직업비중을 하락하게 하는 방향이다.<sup>33)</sup>

<표 13> 임금근로자의 직업별 구성변화의 요인별 분해 : 1995:III~99:III (단위:% 포인트)

	전문기술직		사무서비스직		생산직	
	95-97	97-99	95-97	97-99	95-97	97-99
고용비중 변화	1.7	1.9	0.7	-0.8	-2.4	-1.2
산업구조 변화	0.6	0.9	1.5	0.9	-2.1	-1.8
직업구조 변화	1.1	1.1	-0.8	-1.7	-0.3	0.6

주 : 각년도 제3분기 기준임. 전체 고용이 아닌 667개 직군에 대한 통계임.

32) 정보화기술(IT)이 사무서비스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과거 많은 혼돈이 있었다. 70, 80년대의 연구에서는 사무서비스직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90년대의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산업내 직업구성과 산업별 구성의 효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33) 이러한 생산직 비중의 하락 요인 분석 결과가 Berman, Bound, Griliches(1994)의 결과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내 405개 산업간 및 산업내 고용구성 변화를 비교하여 생산직 고용비중 하락의 약 70%가 산업내 직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제조업 내의 고용비중 변화를 고려한 것이며, 제조업의 고용비중 자체의 하락으로 인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 IV. 要約 및 結論

본 고의 논의를 요약하여 각 직군별 및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의 변화를 경험적 확률누적함수(empirical CDF)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의 횡축은 각 직군의 평균임금수준을 중간치를 1.0으로 한 지수로 나타낸 것이며, 종축은 누적확률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직군별 분포 변화를 보이기 위하여 각 종사상 지위별로 97:III과 99:III의 직군별 분포를 비교하였는데, 그림에서 두터운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97년에 해당한다. 누적확률선이 왼쪽(혹은 위)에 있다면, 직군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것이므로, 고용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 전체로는 65% 이하에서는 99년에 97년보다 하위직의 비중이 높으며 그 이상에서는 상위직의 비중이 높다. 즉, 경제위기 이후 2/3 이하에서는 직군별 분포로 본 고용구조는 악화하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개선된 것이다. 상용직과 임시직 내에서는 99년에 고용구조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성비중이 악화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표 10>) 일용직은 증가하였으나, 그 고용구조는 악화되었다. 즉, 주로 하위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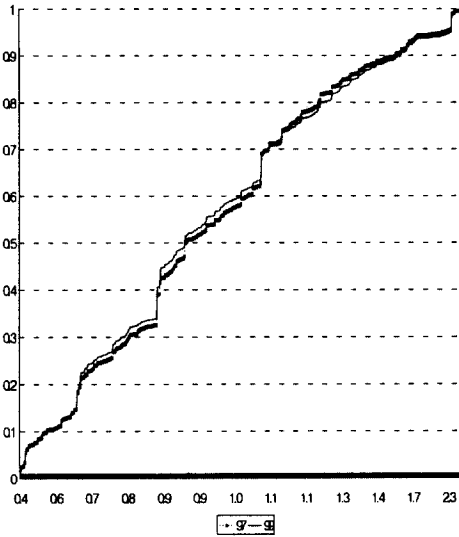
이러한 고용구조 변화의 양상은 미국에서의 임금순위별 노동수요 변화의 양상과 거의 일치한다.<sup>34)</sup> 미국 노동시장에서도 1979~89년간 약 70% 이하의 임금순위에서는 노동수요가 평균적으로 5% 정도 하락하였고, 상위에서는 노동수요가 상승하였으며, 그 상승폭은 최상위일수록 더욱 크다. 즉, 숙련수준별 노동수요에 있어서 하위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상위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노동수요의 이동(skill demand shift)이 일어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일어난 상용직 감소, 직업구조 변화, 임금격차 확대 등의 현상이 이러한 노동수요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노동수요구조는 본질적으로 생산양식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방향은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수요의 변화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은 노동력 구성, 노동시장제도 등에 따라 각국별로 판이하게 나타난다.(Freeman and Katz, 1994)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노동수요구조에 대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노동수요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력들을 위한 근로자 개별적인 재훈련, 재취업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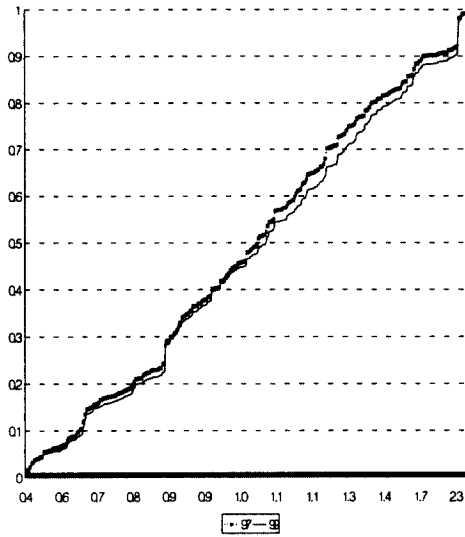
34) Juhn, Murphy, Pierce(1993)의 Figure 9, Changes in labor demand by wage percentiles(p.435) 참조.  
미국 외 다른 국가들에서도 노동수요의 변화는 유사하다. Katz, Loveman, Blanchflower(1995) 참조.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직군순위별 분포 변화 : 1997:III~99: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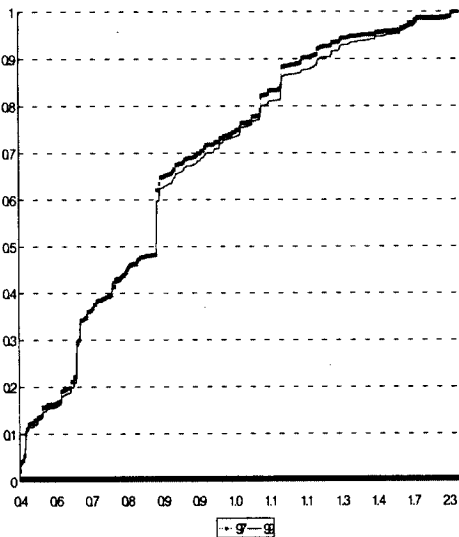
A. 임금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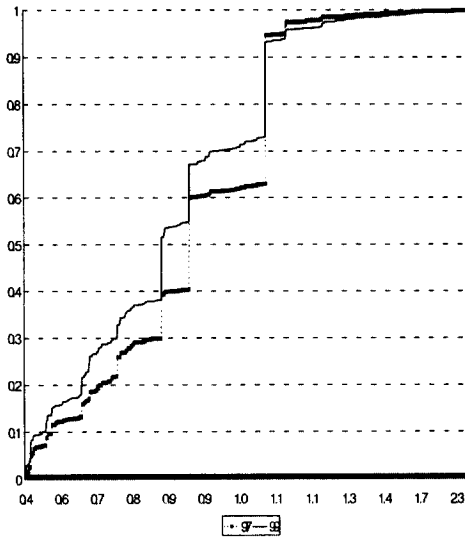
B. 상용직 근로자



C. 임시직 근로자



D. 일용직 근로자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임금 조사자료와 보다 구체적인 직업분류를 갖춘 통계자료의 분석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임금자료와 세부직업분류의 결여에 의하여 크게 제약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 내에서의 인력구조 변화가 어떠한지, 고용조정된 인력의 이동은 어떠한가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이 고용구조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시장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 김형만, 「노동비용 및 고용기간이 기업의 인력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경제학 연구』 제45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7.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최경수,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단시간 근로제의 촉진과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Abraham, K.G. and Susan N. Houseman, "Does Employment Protection Inhibit Labor Market Flexibility?" in Rebecca M. Blank ed., *Social Protection versus Economic Flexibility*, NB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Berman, Eli, John Bound, and Zvi Griliches, "Changes in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U.S. Manufacturing: Evidence from the 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67-397, 1994.
- Blanchflower, D.G., and R.F. Freeman, "Did the Thatcher Reforms Change British Labor Performance?" NBER Working Paper, no.4384, Cambridge Pre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S.A., 1993.
- Bound, John and George Johnson,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the 1980's: An Evaluation of Alternative Explanation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82, n.3, 371-192, 1992.
- Fields, Gary and Gyeongjoon Yoo, "Falling Labor Income Inequality in Korea's Economic Growth: Patterns and Underlying Causes," OECD, January, 1997.
- Freeman, R.B. and L.F. Katz, "Rising Wage Inequality: The United States Vs. Other Advanced Countries," R.B. Freeman ed., *Working Under Different Rules*, NBER,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94.
- Juhn, C., K.M. Murphy, and B.Pierce,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101, n.3, 1993.
- Juhn, C., K.M. Murphy, and R. Topel, "Why Has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ncreased over Time?"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1.
- Katz, L.F., Gary W. Loveman, and David G. Blanchflower, "A Comparison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Wages in Four OECD Countries," R.B.

- Freeman and L.F. Katz eds.,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Katz, Lawrence F. and Kevin M. Murphy, "Changes in Relative Wages, 1963-1987: Supply and Demand Facto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CVII, 35-78, February, 1992.
- Kim, Dae-il and Robert H. Topel, "Labor Markets and Economic Growth: Lessons from Korea's industrialization," R.B. Freeman and L.F. Katz eds., *Differences and Changes in Wage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Lee, J.H. and Dae-il Kim, "Labor Market Developments and Reforms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97.
- Lilien, David M. and Robert E. Hall, "Cyclical Fluctuations in the Labor Market," Chapter 17 in Orley C.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North-Holland, 1986.
- Rosen, S., "Short-Run Employment Variation on Class-I Railroads," *Econometrica*, 1968.
- Rosenthal, N.H., "The Nature of Occupational Employment Growth: 1983~93," *Monthly Labor Review*,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U.S.A., 1995.